

“대구·경북 소상공인 다 죽는다... 생계비라도 우선 지원을”

중소업체, 추경 조속통과 촉구
“최소한의 생존 이어지게 해야”
부가세 한시적 인하 방안 등 제시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동작구 사무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코로나19 피해 완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조속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구·경북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구호 생계비’를 우선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10%인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5%까지 인하하는 조치도 아이디어로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12일 호소문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대구·경북지역은 고사 직전인 상황에서 추경 집행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추경예산안에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이 포함돼 있는 만큼, 국회가 관심을 갖고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조만간 국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코로나19 추경예산안 통과와 시급성을 추가로 설명할 계획이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악재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는 현 상황이 비상사태임을 감안해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착한 임대인 운동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율 인

하 ▲공제금 대출상환기일 연장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지원 등 다양한 자구책 마련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서울 동작구에 있는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매출을 올리는 소상공인들은 어느 업종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업종과 지역이 매출 하락으로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고 있다”면서 “임대료, 인건비는 다 나가는데 월급도 못주는 등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

고 있다”고 토로했다.

연합회 빅데이터 센터가 분석한 서울 중구의 인구 유동량은 2월 9일 당시 930만명에서 2월 29일엔 200만으로 80%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구 수성구의 경우 같은 시기 유동인구가 1000만명에서 150만으로 85%나 줄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유동인구가 70~80% 줄어들면서 소상공인 매출도 그만큼 감소, 상황이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직접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대구·경북지역에 우선적으로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를 지원하고,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행 10%인 부가세 상반기 5% 인하 ▲4800만원의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 ▲소득세 감면, 전기료, 수도료와 같은 간접세 성격의 공과금 감면 ▲4대 보험료 지원 또는 감면 ▲기존 대출 부담 완화 방안 수립 등도 건의했다.

연합회는 “현재 11조7000억원의 예산안에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1개월당 4조원씩 3개월 분 12조원을 증액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해서 총 30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안’이 수립돼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겪고있는 극한의 위기를 넘어 코로나 19 극복과 이후의 경기 부양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312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제한 관련 수출 영향 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0.8%가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 등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일본에 대한 수출영향(81.8%)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78.2%), 베트남(71.9%), 미국(63.8%)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예상되는 피해(복수응답)로는 ‘해외 전시회 취소 등으로 수주기회 축소’(73.8%), ‘입국금지 등 해당 국가 내 영업활동 제한’(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부품 및 원자재 수급 애로로 인한 계약 취소’(18.6%),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15.4%)도 그 뒤를 이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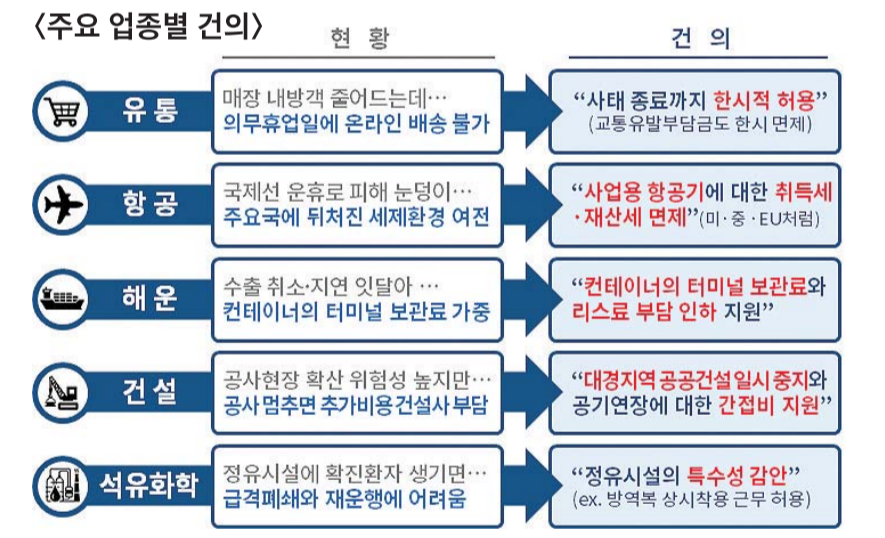
“추경 역부족... 기업현장 체감 대책 필요”

대한상의, 경제활력 강화 긴급 건의 전문가 등 의견수렴 30개 과제 제시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확대, 기준금리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을 통한 경제 활력 강화 등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그러면서 전국상회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1조7000억원으로 발표된 현재 추경안 규모로는 산업계 피해를 지원하기에 역부족이고, 멈춰선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수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경규모인 11조7000억원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p에 불과하며,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규모(28조40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며 “시장에서 예측하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대규모 추경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



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규정이 까다로워 기업이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선창구에서는 기존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조업 재개 관련 애로 사항도 컸다. 대한상의는 “근로자의 자가격리 등 결원이 발생하거나 시설폐쇄 후 조업(영업)을 재개할 때 주 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기업이 많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사태 종료 후 업무 정상화를 위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경희생활과학 온라인몰 회원가입 이벤트

한경희생활과학은 자사 온라인몰에서 3월 한 달간 회원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경희생활과학 자사몰에서 많은 고객들이 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로 개

인 위생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한경희생활과학의 스티프 가전 역시 회원가입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한경희생활과학의 스티프 가전은 강력한 스티프로 99.9% 살균, 소독해 정결하

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노즐과 악세서리를 구성해 청소나 다림질과 동시에 살균 소독이 가능하다.

이벤트 기간 내 자사몰에 신규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총 80명의 고객에게 자사의 인기 아이템인 회전 스티프 청소기 마스터와 진공청소기, 스티프 다리미를 비롯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김승호 기자

‘홈쇼핑 아카데미’ 강사·바이어 모집

중기유통센터, 15일까지 접수



중기유통센터는 창업기업의 홈쇼핑 판로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홈쇼핑 아카데미(H-LAB)’ 지원사업의 강사 및 멘토, 바이어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유통센터와 창업진흥원이 함께 진행하는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성장추진프로그램 홈쇼핑 아카데미(H-LAB)’는 우수한상품을 개발하고 판로 개척 및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홈쇼핑 아카데미는 창업 3년 이상~7년 미만으로 소비자를 취급하는 창업기업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150여개 기업을 선정, 홈쇼핑 시장진출 교육과 상품

성 향상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이번 홈쇼핑 아카데미(H-LAB)는 강사·멘토·바이어 모집을 통해 홈쇼핑 분야의 다양한 전문 인력을 구성, 중소기업의 홈쇼핑 역량강화 및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홈쇼핑 아카데미 강사·멘토·바이어 자격기준은 홈쇼핑 분야 전·현직 종사자로서 홈쇼핑시장 입점전략 분석, 상품화(품질, 브랜드, 마케팅 등)를 위한 제품개선 멘토링 등 홈쇼핑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한 전문가이다.

/김승호 기자

티웨이항공, 업계 첫 ‘무통장입금’ 결제

티웨이항공이 국내 업계 최초로 무통장입금 결제 서비스를 실시하며 편리한 결제 환경 구축에 나섰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10일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항공권 예약시 무통장입금 결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무통장입금 결제 서비스는 특히 본인 명의의 카드가 없는 청소년이나 외국인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무통장입금 결제를 원하는 고객은 항공권 예약 진행 중 결제 단계에서 결제 수단으로 ‘국내 무통장입금’을 선택하면 고유의 가상 계좌번호가 발급되며 3시간 이내 입금하면 항공권 발급이 완료된다. 예약센터에서 항공권을 예약하는 경우에도 무통장입금 결제 서비스를 이



/티웨이항공

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티웨이항공 전용 간편 결제 시스템 티웨이페이를 론칭했다. 자주 쓰는 결제 카드를 미리 한 번만 등록해두면 이후 결제시 카드 정보를 매번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빠른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